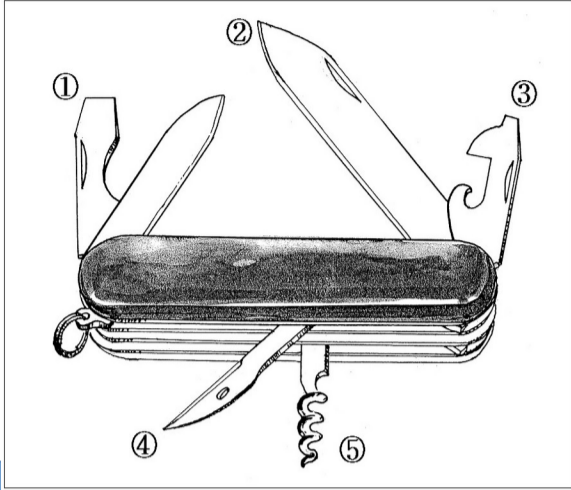


# 언어 영역

1

찍입니다.



- ㄱ. 발언에 대한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 ㄴ. 관련 있는 화제를 유도하여 좌담을 진행하고 있다.
- ㄷ. 발언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ㄹ. 핵심 화제의 개념을 소개하여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ㄴ, ㄷ   ㄷ, ㄹ

ㄴ, ㄹ

# 언어 영역

2



에 관련 자료 두 가지를 더 접하였다. 두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개요를 적절하게 수정한 것은?

제목 : 핵가족화의 영향과 대책  
 I. 서론 :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  
 II. 본론  
 1. 가정의 민주화 - 긍정적인 면  
 가. 여성의 지위 향상  
 나. 개성과 창의성 존중  
 2. 가족 구성원의 개별화 현상 - 부정적인 면  
 가. 가족 간의 대화 단절  
 나. 노인 소외 문제  
 III 결론 : **가정 내 권력 관계의 강화**  
 <자료 1> 이혼율 변화 추이 (단위 : %)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  
 <통계청 자료(2002년) 참고>  
 <자료 2>  
 한 사회 문제 연구 기관의 최근 조차에 의하면 인구 대비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연구 기관은 청소년 범죄율은 이혼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〇〇신문에 실린 기사>

것은?

화신인 8명의 여자들을 만나 아내로 삼고 영화롭게 살다가

눈 내린 겨울에도 같은 빛깔 한 모습  
뜬구름 좇는 무리들아 대나무를 닮아라.

세상의 유혹 앞에 의연한 지사(?)여  
가슴속 부끄러운 티끌 다 씻어 주소서.

하여 나라에 여러 차례 공을 세우고 승상이 된 후 부마가 된다. 그 동안 그는 8 선녀의

# 언어 영역

만년에 인생무상을 느낀다. 그러던 중, 호승을 만나 설법을 듣고

크게 깨달으면서 꿈에서 깬 성진은 더욱 불법에 정진하게 된다.

5

# 언어 영역

승상이 옥소를 던지고 부인 낭자를 불러 난단을 의지하고

손을 들어 두루 가리키며 가로되,

# 언어 영역

6

"북으로 바라보니 평한 들과 무너진 언덕에 석양이 쇠한

풀에 비치었는 곳은 진 시황의 아방궁이요, 서로 바라보니

7

# 언어 영역

슬픈 바람이 찬 수풀에 불고 저문 구름이 빈 뒀에 덮은 데는

한 무제의 무릉이요, 동으로 바라보니 분칠한 성이 청산일

# 언어 영역

돌렸고 붉은 박공이 반공에 숨었는데, 명월은 오락가락하되

옥난간을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 이는 현종 황제가 태진비로

9

# 언어 영역

더불어 노시던 화청궁이라. 이 세 임금은 천고 영웅이라.

사해로 집을 삼고 역조로 신첩을 삼아 호화 부귀 백 년을

# 언어 영역

10

짧게 여기더니 이제 다 어디 있나뇨?

소유는 본디 하남 땅 ㉠베옷 입은 선비라. 성천자 은혜를

# 언어 영역

11

입어 벼슬이 장상에 이르고, 제 낭자 서로 좃아 은정이 백

년이 하루 같으니, 만일 ㉠전생 숙연으로 모두 인연이

# 언어 영역

12

진하면 각각 돌아감은 천지에 떳떳한 일이라. ㉠우리 백 년

후 높은 대 무너지고, 굽은 못이 이미 메워지고, 가무하던

# 언어 영역

땅이 이미 변하여 거친 퇴와 쇠한 풀이 되었는데, 초부와

목동이 오르내리며 탄식하여 가로되, '이것이 양 승상의 제

# 언어 영역

14

남자로 더불어 놀던 곳이라. 승상의 부귀 풍류와 제 남자의

옥용 화태 이제 어디 갔나뇨' 하리니 어이 ㄹ인생이 텃없지

# 언어 영역

15

아니리오?

내 생각하니 천하에 유도와 선도와 불도가 유에 높으니 이

# 언어 영역

16

이론 삼교라. 유도는 ㉠생전(??) 사업과 신후(??) 유명할

뿐이요, 신선은 예부터 구하여 얻은 자가 드무니 진 시황, 한

# 언어 영역

무제, 현종제를 볼 것이라. 내 치사한 후로부터 밤에 잠 곧

들면 매양 포단 위에서 참선하여 뵈니 이 필연 불가로 더불어

# 언어 영역

18

인연이 있는지라. 내 장차 장자방의 적송자 좃음을 효칙\*하여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음을 찾고, 오대에

# 언어 영역

올라 문수께 예를 하여 불생 불멸할 도를 얻어 진세 고락을

뛰어나려 하되, 제 낭자로 더불어 반생을 좇았다가 일조에

# 언어 영역

20

이별하려 하니 슬픈 마음이 자연 곡조에 나타남이로소이다."

(중략)

# 언어 영역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더니 홀연 석양에 막대 던지느

소리가 나거늘, 고이히 여겨 생각하되 어떤 사람이

# 언어 영역

22

올라오는고 하더니, 한 호승이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고이하더라.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을 보고 예하여 알,

# 언어 영역

"산야 사람이 대승상께 뵈나이다."

승상이 이인인 줄 알고 황망히 답례 왈,

# 언어 영역

24

"사부는 어디로서 오신고?"

호승이 소 왈,

# 언어 영역

"평생 고인을 몰라 보시니 귀인이 잇음 혈탄 말이

옳도소이다."

# 언어 영역

26

승상이 다시 보니 과연 낮이 익은 듯하거늘, 홀연 깨쳐

능파 낭자를 돌아보며 왈,

# 언어 영역

"소유, 전일 토번을 정별할 제 꿈에 동정 용궁에 가

잔치하고 돌아올 길에 남악에 가 노니, 한 화상이 법좌에

# 언어 영역

28

앉아서 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가 노화상이냐?"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 언어 영역

"옳다, 옳다. 비록 옳으나 몽중에 잠깐 만나 본 일은

생각하고 십 년을 동처하던 일을 알지 못하니 뉘 양 장원을

# 언어 영역

30

총명타 하더뇨?"

승상이 가로되,

# 언어 영역

"소유, 십오륙 세 전은 부모 좌하를 떠나지 아녜고, 십육에

급제하여 연하여 직명이 있으니, 동으로 연국에 봉사하고

# 언어 영역

32

서로 토번을 정벌한 밝은 일찍 경사를 떠나지 아녘으니, 언제

사부로 더불어 십 년을 상종하였으리오?"

# 언어 영역

호승이 소 왈,

"상공이 오히려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소이다."

# 언어 영역

34

승상 왈,

"사부, 어찌면 소유로 하여금 촌몽을 깨게 하리오?"

# 언어 영역

호승 왈,

"이는 어렵지 아니하니이다."

# 언어 영역

36

하고, 손 가운데 석장을 들어 석난간을 두어 번 두드리니,

홀연 네 녀 뒷골에서 구름이 일어나 대상에 끼이어 지척을

# 언어 영역

분변치 못하니,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몽중에 있는

듯하더니 오래게야 소리질러 가로되,

# 언어 영역

38

"사부가 어이 정도로 소유를 인도치 아니하고 환술로 서로

희롱하나뇨?"

# 언어 영역

말을 맞지 못하여서 구름이 걷히니 호승이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 낭자가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정히

# 언어 영역

40

경황하여 하더니, 그런 높은 대와 많은 집이 일시에 없어지고

제 몸이 한 작은 암자 중의 한 포단 위에 앉았으며, 향로에

# 언어 영역

41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치었더라.

스스로 제 몸을 보니 일백여덟 날 염주가 손목에 걸렸고,

# 언어 영역

42

머리를 만지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요, 다시 대승상의 위의 아니니, 정신이

# 언어 영역

황홀하여 오랜 후에 비로소 제 몸이 연화 도량 성진 행자인

줄 알고 생각하니, 처음에 스승에게 수책하여 풍도로 가고,

# 언어 영역

44

인세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 되어 장원 급제 한림학사하고,

출장 입상하여 공명 신퇴하고, 양 공주와 육 낭자로 더불어

# 언어 영역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라. 마음에 이 필연 사부가 나의

염려를 그릇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 꿈을 꾸어 인간

# 언어 영역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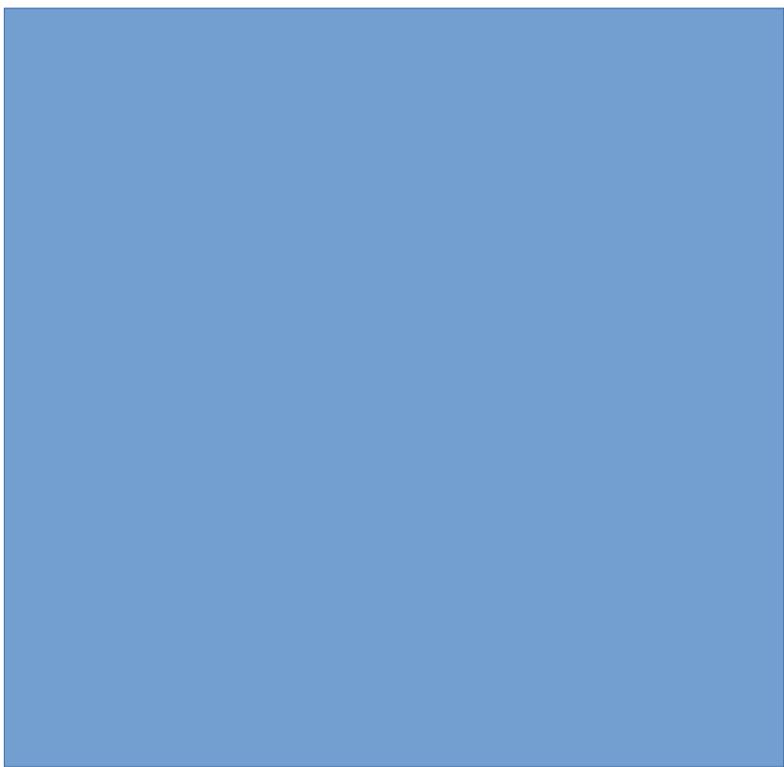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사인 줄 알게 함이로다.

— 김만중, <구운몽>

\*효칙(??) : 본받아 법으로 삼음.



[18~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E 낙?산 ㅂ동?반으로 ?의?샹ㄷ ㅅ에 올라 안자,  
 ?일?출을 보리라 밤등만 내려ㅎ · 니,  
 ?샹?운이 집피ㄴ · ㄴ 동, ?늑?똥익 바퇴ㄴ · ㄴ 동,  
 ㅂ다ㅎ ㅅ ㅅ ㅅ 날 제ㄴ · ㄴ ?만 ㅅ 국이 일위더니,  
 ?턴?등의 티ㅅㅡ니 ?호?발을 헤리로다.  
 아마도 널구름 근처의 머물세라.  
 ㉠ ?시?철은 어ㄷ ㅅ하고 ?ㅎ ㅅ ?딱만 나맛ㄴ · 니.  
 ?턴?디ㄱ간 ?장한 기별 ㅅ · 셔히도 ㅎ · ㄴ ㅅ이고.  
 ?샤?양 ?현?산의 ㅅ택ㅅ툑을 ㅅ니ㅅ · ㄴ와  
 ?우 ㅅ개?지?륜이 ㅅ경?ㅅ로 ㄴ 려가니,  
 ?십?리 ?빙?환을 다리고 고터 다려,  
 ?당?ㅎ 올흔 소개 슬 ㅅ · 장 퍼더시니,  
 ㅅ결도 자도 잘샤 모래ㄴ · ㄴ 헤리로다.  
 ㅅ고?쥬 ?ㅎ ㅅ ㅅ 랍ㅎ · 야 ?텅?ㅅ · ㅎㅎ ㅅ 올라가니,  
 : 강?문 ㅅ 교 너믄 겨ㅅ ㅅ ㅅ 대?양이 거기로다.  
 ㉡?동?용한다 이 ㅅ ㅅ 기?샹, ?활?원한다 더 Q경ㅅ계,

# 언어 영역

48

이도곤 ㄱ·ㅈ·ㄴ ㄷ·ㅌ 어디 잇닷 말고,  
 ?흥?장 ㅁ고?ㅅ·ㄹ·ㄹ 현ㅅ·타 ㅎ·리로다.  
 : 강?능 ㅁ대ㄱ도?호 ?풍?속이 도흘시고,  
 ?절?효?정?문이 골골이 버러시니  
 ?비?옥...가?봉역 이제도 잇다 ㅎ·ㄹ다.  
 ?진?쥬<sup>◆</sup>관 ?뎡?셔?루 ?오?십?철 ㄴ·린 ㅁ이  
 ?태?ㅁㄱ?산 ㄹ림재ㄹ·ㄹ ㅂ동?ㅎ로 다마 가니,  
 ㅅ·ㄹ하리 ?한 : 강의 ?목?먹의 다히고져.  
 ?왕?덩이 ?유?할ㅎ·고 ?풍X경이 못 슬믈니,  
 ?유?회도 하도 할샤, ㅍㄱㄱ?수도 둘 ㅅ 업다.  
 ?췌ㄷ사ㄹ·ㄹ ㅍ ㄹ워 내여 ㅅ두?우로 ?향ㅎ·살가,  
 ?션?원을ㅈ·ㅈ·려 ㅅ 단?혈의 머므살가.

- 정철, <관동별곡(◆ㅂ?나)>

?ㄱㅅ(탁료 계변)\*에 ㅁㅁ??(금린어) | 안주로다.  
 이 몸이 ?\ (한가) ㅎ음도 ?ㄴ?(역군은)이샷다.  
 : ?(강호)에 녀름이 드니 ?ㅂ(초당)에 일이 업다.  
 ??(유신)한 : ?(강파)ㄴ ㄴ ㅂ내ㄴ·니 ㅁ·람이다.  
 ㅅ 몸야서ㄴ·ㄹ ㅎ음도 ?ㄴ?(역군은)이샷다.  
 : ?(강호)에 ㄱ ㅁ ㅂ ㅅ ㅁ 드니 고기마다 ㅅ·ㄹ져 잇다.  
 ??(소정)에 그믐 시러 흘리 ㅁㄴ워 더더 두고,  
 이 몸이 ??(소일) ㅎ음도 ?ㄴ?(역군은)이샷다.  
 : ?(강호)에 겨월이 드니 눈 기퓌 자히 남다.  
 샷갓 빗기 ㅁ ㅁ 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ㅅ 몸이 칩지 아니 ㅎ음도 ?ㄴ?(역군은)이샷다.

- 맹사성, <강호사시가(:???)>

# 언어 영역

\* ?□π?(탁료 계변) : 막걸리 마시며 노는 시냇가.

\* 누역 : 풀로 만든 비옷. 도롱이.

# 언어 영역

50

말은 형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도 변한다. 이러한 의미 변화의 원인으로서는 언어적인 것, 역사적인 것, 사회적인 것, 심리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언어적 원인에 의한 의미 변화는, 말소리나 낱말의 형태 또는 통사적인 것이 원인이 되어 그 뜻이 바뀌는 것을 이른다. 그 중 한 예를 들면, "코가 흐른다."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는데, 이는 생략에 의한 언어적 의미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이다. 즉, "코가 흐른다."에서 '코'는 '콧물'에서 '물'이 생략된 것이다.

수반(??)하지 아니하고, 사물의 변화만 빚어 놓음으로써 언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변화의 예를 들면, 배[?]가 그러한 예이다. 이는 옛날의 거룻배, 돛단배를 비롯하여 오늘날의 발동선, 증기선, 핵 잠수함에 이르는 모든 선박을 다 가리키게 되었다.

사회적인 것이 원인이 되는 의미 변화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사회를 이룬 계층이 바뀜으로 의미가 바뀌는 것이다. 이는, 어휘가 적용되는 사회적 범위가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왕'은 왕정(??)의 최고 책임자를 이르는 말이지만, 이 말의 사회적 적용 범위를 확대일반화(???)하여 쓰게 되면, 그 의미가 확장된다. 그리하여 '암산왕, 광산왕'과 같이 '제1인자'라는 뜻을 가지거나, '왕방울, 왕거미'와 같이 '크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사회 구조가 바뀌어서 의미가 변화하는 것도 있다. 이는 역사적 원인에 의한 의미 변화와 표리(??)의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사회적 사실을 반영하는 낱말의 의미 변화에서 볼 수 있다.

끝으로 심리적인 것이 원인이 되어 의미가 변하는 것도 있다. 여기에는 어떤 사실에 대한 심리적인 호감에 의한 것과 금기에 의한 것이 있다. 첫 번째의 호감(??)을 가질 때, 자연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전연 그것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것을 입에 올리게 된다. 이는 한 때 '나일론'이 인기가 있었을 때, '나일론 참외, 나일론 박수'와 같이 '나일론'이란 말이 사방으로 확장되어 쓰이는 경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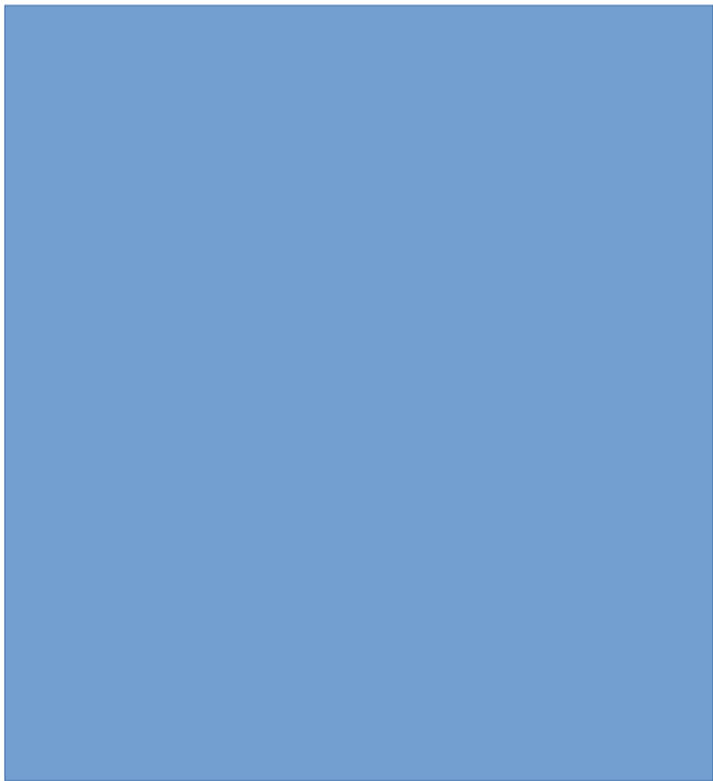
# 언어 영역

51

볼 수 있다. ㉠ 금기에 의한 의미 변화하게 표현함으로써 의미 변화가 빚어지는 경우, 미풍 양속을 해치지 않으려고 돌려 표현함으로써 그 뜻이 바뀌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상, 우리는 우리말의 의미 변화를 그 원인 면에서 살펴보았다. 모든 말이 본래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말의 의미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 국어를 보다 잘 이해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언어 생활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7. 이 중 잘못된 것은?



# 언어 영역

52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젠가 선거를 앞둔 유럽의 모 정당에서 개미를 그들의 상징물로 정한 일이 있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개미와 베짚이' 이야기에 빗대어 그들이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였다.

포식 동물종족 번식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적인 일은 일찌감치 던져 버리고 그저 유권자들에게 잘 보여 표 모으는 일에만 열심인 듯한 직업 정치인들의 이미지엔 오히려 베짚이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모름지기 정치를 한다는 이들은 대개 한 밀천 마련한 다음 그저 허구한 날 표를 좇는다. 그리고 ㉠ 유권자를 위하는 정치를 하기보다는 정권 획득을 통하여 집권 정당이 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분주히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다. 베짚이 수컷 역시 번식기가 시작되베짚이 암컷베짚이의 노래는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행위이다.

이솝 우화가 아니더라도 개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지런함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다. 실제로 개미굴 앞에 앉아 내려다보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개미들의 모습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미들은 집단 전체로 볼 때 부지런한 것이지 한 마리 한 마리를 놓고 볼 때는 결코 부지런한 동물이 아니다. 물론 종(?)에 따라 다르고 집단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어느 집단이건 일하는 개미들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에 비해 두 배는 족히 되는 개미들이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한다.

또, 개미 사회에서는 여왕개미와 일개미가 어려서부터 엄격하게 구분된다. 일개미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여왕개미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일개미와 여왕개미는 유전적으로는 똑같은 암컷이다. 다만 어려서 차세대 여왕개미로 선택된 개미는 다른 개미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제공받아, 크고 강하게 자랄 뿐이다. 그렇게 일단 여왕이 되면 똑같이 암컷으로 태어난 다른 일개미들을 부리며 홀로 번식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린다. 그러나 일개미들이 알을 낳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생식 기관이 발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왕개미가 그들이 알을 낳지 못하도록 화학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 여왕물질이라는 일종의 페로몬을 분비하여 수태할 수 없게 통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 권력을 잡은 세력이 각종 강압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모습과 비슷하다.

물론 집단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여왕개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딸들에게 강제로 불임 시술을 해 가며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 가끔 굴 한쪽 구석에서 따로 알을 낳아 기르는 일개미들이 있기는 하지만 발각되는 날에는 여왕의 가차 없는 숙청이 따른다.

한 정당이 스스로를 개미에 비유한 것은 놀고 먹는 일개미처럼 되고 싶거나, 열심히 일하는 일개미 위에 군림하는 여왕개미처럼 되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당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당이지 진정으로 유권자를 위하는 정당이라고는 볼 수 없다.

# 언어 영역

겨울 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말없이 삭이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어지는

백설을 담고 온다.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주빋주빋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든 이의 창문 가에서는

(가) 설일(??)

김남조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처럼 소재의 배치가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동양화는 소재가 남들이 즐겨 써 오던 것이든지, 구도가 오랜 세월을 두고 정형화한 것이라도 상관하지 않고 반복하여 그리는 경우도 많다. 이런 화법(??)은 단순히 보기에는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나름대로 화가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양화를 제대로 독화(??)\*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우의(??)로 읽는 법이 있다. 이것은 소재가 상징하는 바를 파악하며 읽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에 모란꽃이 있으면 '부귀(??)'로, 장미가 그려져 있으면 '청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으면 된다. 또 석류 열매에 씨앗이 가득 찬 모습이라든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나 조롱박 그림은 자손이 번창하기를 염원하는 '다자(??)'로 읽어야 한다.

다음으로, 그려진 사물의 이름을 동음 이자(???)\*의 문구로 바꾸어 읽는 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예로 '죽석도(???)'가 있다. 죽석도란 대나무를 바위와 곁들여 그린 그림으로, 동양에서는 오래 전부터 그려 왔다. 사실 대나무는, 바위가 있고 그늘진 척박한 땅에서는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바위와 함께 있는 대나무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굳이 대나무와 바위를 같이 그린 이유는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기 위한 것이다. 중국어에서 '죽(??)'은 '축(??)'과 음이 같고, 바위는 '수(??)'로 읽혀 죽석도는 '축수(??)'의 의미를 담은 그림이 된다.

그리고 고전 문구나 일화를 상기하며 읽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소나무와 대나무, 그리고 매화를 함께 그린 세한삼우도(???)의 경우는 <논어>의 익자삼우(???)와 손자삼우(???)의 '삼우(??)'를 떠올리게 하여 바람직한 친구 교제의 가르침을 연상하게 한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은 모두 이 뜻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요컨대, 동양화는 자연과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소재들을 단순히 조합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에 담긴 뜻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화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고려해서 봐야지, 이것을 ㉠도외시한 채 구도나 색감, 데생력 등 서양화적 안목으로만 감상한다면 그 의미가 절하될 수밖에 없다.



물고기 세 마리를 그려 놓은 위 그림은 '삼여도(???)'다. 이 '삼여도'는 <왕숙전(???)>에 나오는 동우(??)에 관한 일화를 알아야 그림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동우에게 배움을 청하자 동우는 책을 백 번만 읽으면 뜻이 저절로 통한다며 거절했다. 이에 그 사람이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자, 동우가 다시 말하기를 학문을 하는 데에는 세 가지 여가(??) - 밤, 겨울, 비 오는 날 - 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삼여도'는 학문하는 태도에 대하여 일깨운 그림이기 때문에 선비의 서재에 어울리는 그림이다.

\* 동음 이자(???) : 발음은 같으나 글자가 다른 것.

# 언어 영역

56

유수(??)난 어찌하야 주야(??)에 굿지 아니난고  
우리도 그치지 말아 만고상청(?ㅁ??)하리라

## 언어 영역

나는 지난해 여름까지 이름 있는 난초(Y?) 두 분(?)을 정성스레 정말 정성을 다해 길렀다. 3년 전 거처를 지금의 다래현으로 옮겨 왔을 때 어떤 스님이 우리 방으로 보내 준 것이다. 혼자 사는 거처라 살아 있는 생물이라고는 나하고 그 애들뿐이었다. 그 애들을 위해 관계 서적을 구해다 읽었고, 그 애들의 건강을 위해 하이포넥스가 하는 비료를 바다 건너가는 친지들에게 부탁하여 구해 오기도 하였다.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겨 주어야 했고, 겨울에는 필요 이상으로 실내 온도를 높이곤 하였다.

이런 정성을 일찍이 부모에게 바쳤더라면 아마 효자 소리를 듣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렇듯 애지중지 가꾼 보람으로 이른 봄이면 은은한 향기와 함께 연둣빛 꽃을 피워 나를 설레게 했고, 잎은 초승달처럼 향시 청청했었다. 우리 다래현(4 ◆?)을 찾아 온 사람마다 싱싱한 난(⑩)을 보고 한결같이 좋아라 했다.

지난 해 여름 장마가 개인 어느 날 봉선사로 운허 노사(?? ㉞?)를 뵈러 간 일이 있었다. 한낮이 되자 장마에 갇혔던 햇별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앞 개울 물소리에 어울려 숲 속에서는 매미들이 있는 대로 목청을 돋우었다.

아차! 이 때에야 문득 생각이 난 것이다. 난초를 뜰에 내놓은 채 온 것이다. 모처럼 보인 찬란한 햇별이 돌연 원망스러워졌다. 뜨거운 햇별에 늘어져 있을 난초잎이 눈에 아른거려 더 지체할 수 없었다. 허둥지둥 그 길로 돌아왔다. 아니나다를까. 잎은 축 늘어져 있었다. 안타까워 안타까워하며 샘물을 길어다 축여주고 했더니 겨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어딘지 생생한 기운이 빠져버린 것 같았다.

나는 이 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 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착해 버린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⑩)을 가꾸면서 산철-승가(? ||)의 유행기(?? D)-에도 나그네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 못하고 말았다. 밖에 불 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 놓아야 했고, 분(?)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 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며칠 후, ㉠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 왔기에 선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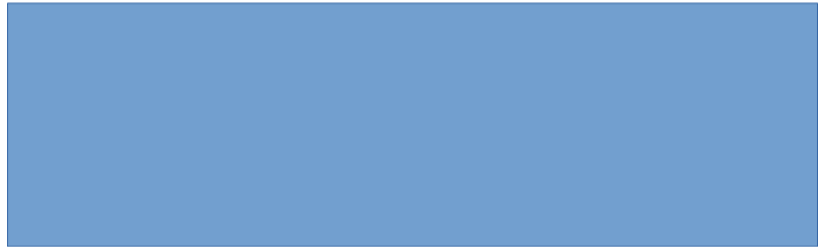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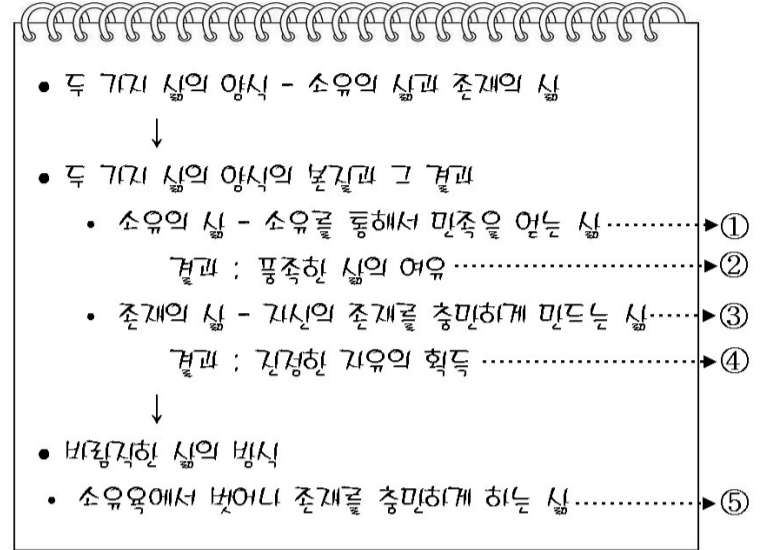
# 언어 영역

58

그의 품에 분을 안겨 주었다. 비로소 나는 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을 듯 흥가분한 해방감. 삼 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흥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이 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난을 통해 무소유의 의미 같은 걸 터득하게 됐다고나 할까.

— 법정, <무소유>

# 언어 영역



왜냐하면 유교 정치에는 종교적·주술적·초자연적인 요소들이 끼어들 여지가 적었고, 내세나 천상 세계에 대한 관심은 적은 반면, 오직 유교적인 이상 세계를 현세에 구현하는 데에만 주요 관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도덕 정치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에는 천명이 철회되어 제위를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유교 국가의 군주는 자기가 신권(??)을 갖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고대 국가를 지배 군주의 세습적 가산으로 보는 이른바 가산제(??) 국가 이론은 유교 국가에는 맞지

# 언어 영역

않는다. 물론 새 왕조의 창시자나 그 공신들이 마치 국가 전체를 새로 획득한 자산으로 여기는 듯한 행동을 하는 수도 있었다. 그래서, 서양의 사회 과학자 중에는 □ 이런 행동을 보고 중국을 세습 가산제의 국가로 보는 학자도 있으나 이는 옳지 않은 판단이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정통 유교 국가의 정치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일도 없었다. 북방 유목 민족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국가의 운영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유교 정치에서는 명분 없는 침략을 정당화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국민의 소비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그런 공리적인 국가 관념도 없었다. 물론 백성의 의식(?)을 풍족하게 하고 외적의 침입과 천재지변(????)에 대해서 백성을 보호해 주는 것이 정치의 책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국가의 목표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유교 국가의 목표는 더 높은 차원에 있었다. 그것은 곧 요순(?)이 보여 준 도덕 정치의 구현이다. 국가의 모든 통치 행위와 행정 제도는 도덕에 입각하고 도덕을 베푸는 데에 주력하여야 하며, 이는 한 마디로 말하면 덕치(堯?)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도 군주의 수덕(?堯)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어느 나라에서도 군주는 덕이 있고 식견이 있고 판단이 빠르고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유교 국가에서처럼 군주의 덕(堯)이 강조된 나라는 달리 없었을 것이다. 군주에 못지않게 덕이 강조되는 대상이 관리들이다. □ 관료 계층은 스스로도 덕을 닦아야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교화하는 교육자적 노력도 기울여야 했다.

집 교화의 선봉으로 나서기도 하였다. 교화 내용은 군주와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 오히려 효도와 우애, 장상\* 존경(???W), 향리 친목, 근면 등의 일반적인 도덕 윤리가 중심을 이루었다. 학교와 가정에서의 교육도 지식이나 기술보다 도덕적 관념에 초점을 맞추었다. 유교 국가는 관료 계층이 백성을 교화하고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백성의 가치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책무를 당연히 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장상(?):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어른.

그러던 중 동생이 그리워 찾아오게 된다.

① 응칠이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어느덧 달이 넘었다. 인제는 물릴 때도 되었고, 좀 떠보고자 생각은 간절하나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망설거리는 중이었다. 그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았다. 산으로 들로 해변으로 발부리 놓이는 곳이 즉 가는 곳이었다.

# 언어 영역

61

그러다 저물면은 그대로 쓰러진다. 남의 방앗간이고 헛간이고 혹은 강가, 시새장. 물론 수가 좋으면 피때기 위에서 밤을 편히 잘 적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 강원도 어수룩한 산골로 이리 넘고 저리 넘고 못 간 데 별로 없이 유람 겸 편답하였다.

그는 한 구석에 머물러 있음은 가슴이 답답할 만치 되우 괴로웠다. 그렇다고 응칠이가 본시 **역마 직성**이나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그도 오 년 전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집도 있었고, 그때야 어딜 하루라도 집을 떨어져 보았으랴. 밤마다 아내와 마주앉으면 어찌하면 이 살림이 좀 늘어볼까 불어볼까 **애간장**을 태우며 갖은 궁리를 되하고 되하였다. 마는 별 뽕족한 수는 없었다. 농사는 열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남는 건 겨우 남의 빚뿐. 이러다가는 결말엔 봉변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루는 밤이 깊어서 코를 골며 자는 아내를 깨웠다. 밖에 나가 우리의 세간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 보라 하였다. 그리고 저는 벼루에 먹을 갈아 찍어 들었다. 벽에 바른 신문지는 누렇게 꼬을렀다. 그 위에다 불러주는 **물목대로** 일일이 내려적었다. 독이 세 개, 호미가 둘, 낫이 하나로부터 밥사발, 젓가락, 짚이 석 단까지 그 다음에는 제가 빚을 얻어온 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쪽 적어 놓았다. 금액은 제각기 그 아래다 달아놓고, 그 옆으론 조금 사이를 떼어 역시 조선문으로 나의 소유는 이것밖에 없노라. 나는 오십사 원을 갚을 길이 없으며 죄진 몸이라 도망하니 그대들은 아예 싸울 게 아니고 서로 의논하여 억울치 않게 분배하여 가기 바라노라 하는 의미의 성명서를 벽에 남기자 안으로 문들을 걸어닫고 ㉡ 울타리 밑구멍으로 세 식구가 빠져나왔다.

이것이 응칠이가 팔자를 고치던 첫날이었다.

㉢ **그들** 부부는 돌아다니며 밥을 빌었다. 아내가 빌어다 남편에게, 남편이 빌어다 아내에게. 그러자 어느 날 밤 아내의 얼굴이 썩 슬픈 빛이었다. 눈보라는 살을 에인다. 다 쓰러져 가는 물방앗간 한 구석에서 섬을 두르고 언내에게 젓을 먹이며 떨고 있더니 여보게유, 하고 고개를 돌린다. 왜, 하니까 그 말이, 이러다간 우리도 고생일 뿐더러 첫째 언내를 잡겠수, 그러니 서루 갈립시다, 하는 것이었다. 하긴 그럴 법한 말이다. 쥐뿔도 없는 것들이 붙어 다닌댔자 별 수 없다. 그보담은 서로 갈리어 제맘대로 빌어먹는 것이 오히려 가뜩하리라. ㉣ **그는** 선뜻 응낙하였다. 아내의 말대로 개가를 해 가서 젓먹이나 잘 키우고 몸성히 있으면 혹 연분이 닿아 다시 만날지도 모르니깐 마지막으로 아내와 같이 땅바닥에서 나란히 누워 하룻밤을 새고 나서 날이 환해지자 그는 툭툭 털고 일어섰다.

**매팔자**란 응칠이의 팔자이겠다.

그는 버젓이 게트림으로 길을 걸어야 걸릴 것은 하나도 없다. 눈 땀 걱정도, 호포 바칠 걱정도, 빚 갚을 걱정, 아내

걱정, 또는 굶는 걱정도. 호동가란히 털고 나서니 팔자 중에는 아주 상팔자다. 먹고만 싶으면 도야지구, 닭이구, 개구, 언제나 옆을 떠날 새 없겠지, 그리고 돈, 돈도…….

그러나 주재소는 그를 노려보았다. 특하면 오라, 가라, 하는데 학질이였다. 어느 동리고 가 있다가 불행히 일만 나면 누구보다도 그부터 붙들려간다. 왜냐하면 그는 전과 사범이었다. 처음에는 도박으로, 다음엔 절도로, 또 그 다음엔 절도로, 절도로…….

그러나 이번 멀리 아우를 방문함은 생활이 궁하여 **근대리** 왔다거나 혹은 일을 해보러 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혈족이라곤 단 하나의 동생이요, 또한 오래 못 본지라 때없이 그리웠다. 그래 모처럼 찾아본 것이 뜻밖에 덜컥 일을 만났다.

- 김유정, <만무방>

# 언어 영역

62

대신, 핵을 제거한 난자와 체세포를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융합해 수정란을 만든다. 난자는 영양분을 제공하는 인큐베이터 역할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유전 정보는 체세포의 제공자와 같게 된다. 수정란은 대리모에 이식되고 이후 정상적인 임신 과정을 거쳐서 복제된 개체가 태어난다.

1996년 최초의 복제 동물인 복제양 돌리가 태어난 후 체세포복제술은 생명공학의 핵심 분야가 됐다. 이 방법에 의해 1998년 일본에서 복제소, 미국에서 복제쥐가 태어났고 1999년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동시에 복제염소가 선보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팀이 1999년 복제젓소 영롱이와 복제한우 진이를 연달아 탄생시켰고 2002년에는 경상대 축산 과학부 김진희 교수팀이 복제돼지를 선보였다. 우리 나라도 복제 선진국에 **①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이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했을 때는 상황이 다르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복제 연구는 고품질의 가축을 만들거나 유용한 의약품을 생산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인류의 식량과 질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을 복제할 때는 종교적·윤리적·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즉, 복제 인간의 등장으로 인류의 오랜 전통과 관습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 또한 복제는 성공률이 낮고 유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영국 로슬린연구소의 그레이엄 볼필드 소장이 복제아기 한 명을 탄생시키는 데 4백 개 이상의 난자와 50명 이상의 대리모가 필요하다고 예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산되지 않고 무사히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복제된 개체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다. 급성 설사 등을 보이며 수일 내에 사망하는 '급성 증후군'과 정상 체중의 2배 이상으로 있다가 얼마 살지 못하는 '거대 체중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무엇보다 팔·다리·간·심장·폐·생식기 등에 기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과학자들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현재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체세포복제술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불완전한 기술이라는 의미다.

복제 인간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생명공학기술은 체세포복제술이다. 간단히 말하면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

이에 대해 황우석 교수는 "복제동물을 조사하면 텔로미어가 반드시 짧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긴 경우도 있다."며, "복제하려는 대상에서 추출한 세포의 분열시기에 따라 텔로미어의 길이가 달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현재 인간 복제를 추진 중인 연구진은 복제아기가 정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황우석 교수는 "복제된 개체의 정상 여부는 태어난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다."면서 복제된 아기가 기형일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태어난 개체가 만약 정상이라 해도 그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실패된 복제아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언어 영역

64

